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교후 5:18-21, 창 33:1-4)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야고보서

기도하라

(약 5:13-18)

Pray to God

(James 5:13-18)

본문에는 기도 혹은 간구라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의 편지를 통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고난당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그리고 병든 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고 싶은 선한 것들이 참으로 많 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욕심을 내도 얻을 수 없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워도 얻을 수 없으며, 심지어는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하므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The word of prayer repeatedly appears seven times in the text. James the Apostle wants to conclude in his letter is prayer.

James the Apostle talks about people in trouble, happy people, and sick people. If we think about those, all people from the world belong to these three classifications.

The good things that we want are a lot while living our life. But James the Apostle encourages us to pray because those could not be gotten because of greed, jealousy, arguing, and fighting. Even though they kill a person, they cannot get.

1. 기도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이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귀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귀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요일 1:3).

사귀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입니다. 이것은 “교제”를 의미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란 매우 깊은 사랑의 친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사랑의 친밀한 교제이고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코이노니아는, 놀랍게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나누는 깊은 교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습니다.

2. 기도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초월적인 능력이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약 5:14).

야고보 사도는 병들었을 때 기도를 하되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라고 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교회의 리더들을 의미하며, 병이 들었을 때 숨기지 말고 특히 장로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고 합니다. 교회는 건강하고, 일들이 잘 풀린 사람들만 기뻐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병들었을 때,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같이 아파하며 기도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기도에 응답이 임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회개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겨질 때 성결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엘리아는 우리와 성질이 같은 사람이므로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 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약 6:17-18).

엘리아에게 임했던 기도의 응답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1. Prayer is personal contact with God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his son, Jesus Christ. We write this to make joy complete (1 John 1:3).

Fellowship refers to koinonia in Greek. This means relationship, which indicates the deepest love. Relation has two meanings: first is that Christians mutually share the deepest love of closeness, the secondly, the Bible says that we surprisingly share the deepest fellowship with the trinity.

We are the creation that God made us in his image and likeness. There is a reason why God made us in his image and likeness in order to share the fellowship of love with us. Through prayer, we can share everything with him.

2. Prayer is a transcendental power to fill our neces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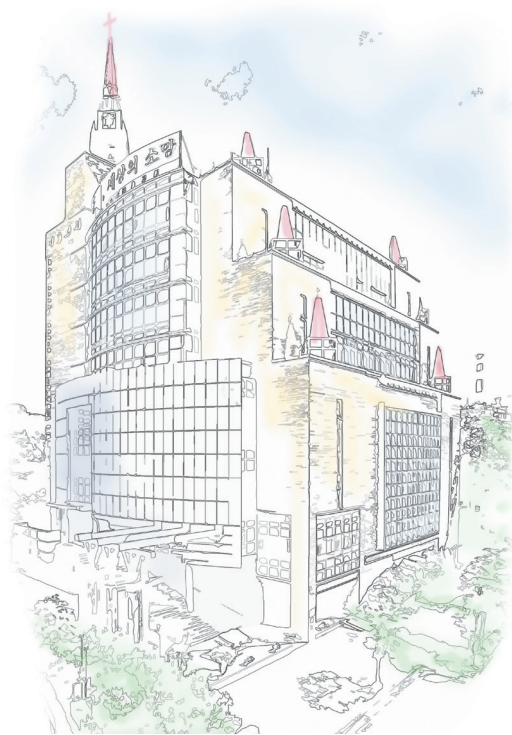
“Is anyone among you sick? Let them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to pray over them and anoint them with oil in the name of the Lord” (James 5:14).

James the Apostle says to call the elders of the church and to pray to God when they are sick. The elders of the church are leaders and when someone is sick, do not conceal but ask elders to pray for them. The church is not the place for those who are healthy and joyful by having gotten along well. On the other hand, when we are sick, and we suffer badly, the community of the church is just the place where we share our pain and pray together.

However, above all, one of the elements of prayer’s response is repentance. Before God and human beings, when we confess our sins, our sins are delivered by Jesus’ precious blood, and our sins are cleaned, the power of holiness and purity can be recovered.

In conclusion,

“Elijah was a human being, even as we are. He prayed earnestly that it would not rain, and it did not rain on the land for three and a half years. Again he prayed, and the heavens gave rain, and the earth produced its crops” (James 5:17-18).The answer of prayer to Elijah will really be present for us. By repenting and praying,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receive the response of God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40학기 서울성경대학 · 열린 프로그램 개강

9월 5일(월) ~ 11월 13일(주일), 10주간

서울교회는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매 년 전, 하반기 서울성경대학과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해 왔다. 2016년 제40학기 서울성경대학 및 2016년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다음과 같이 진행 된다. 대상은 전교인이며 기간은 2016년 9월 5일(월) ~ 11월 13일(주일), 10주간 진행되며. 소정의 수강료가 있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고린도전서	화, 오전 6:10~7:00	조원영 목사
	마가복음	금, 저녁 7:00~7:50	유문건 목사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501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양성반	주일, 오후 3:2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	배경애 전도사	506호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영준 목사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서준권 목사	609호
수화학교 (9/4~10/23)	주일, 오후 1:00~1:50	임규현 목사	606호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601호
서울 아기학교	목, 오전 10:30~12:30	구분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오 바이블 스쿨	토,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702호



호산나 대학 2017학년도 입학설명회

9월 24일(토) 오전 10시 30분

우리나라 최초의 발달장애인을 위한 호산나대학이 설립(2006년 3월)된 지도 벌써 10년이 되었다. 현재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발달장애인이법 제정되어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적 논의와 사회적 책무성도 함께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서 있다.

이에 호산나대학은 성인기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 교육권 보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이정표를 세웠는데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명을 가진 호산나대학에서 2017학년도 입학 설명회를 개최한다.

- * 일시 : 9월 24일(토) 10시 30분
- * 장소 : 호산나대학 세미나실
- * 대상 : 입학 지원 학생, 학부모, 교사
- * 문의 : 031) 585-9184



서울강남노회 부목사 수련회

9월 8일(목) 오전 11시 / 묘동교회

서울강남노회 소속 부목사 수련회가 9월 8일(목) 오전 11시 묘동교회에서 모인다.

영 동 시 찰 회

9월 20일(화) 오전 11시 / 행복한교회

영동시찰회가 9월 20일(화) 오전 11시 행복한교회(이성수 목사, 518-6333)에서 모인다.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우리가 드릴 뜻 있는 예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롬 12:1).

로마서 12:1의 마지막 부분의 헬라어 문장은 매우 애매모호하다. KJV에서는 'reasonable service'로, NIV에서는 'your spiritual worship'로 되어 있다. 헬라어는 이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 예배라 해도 되고 합리적인 봉사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택해야 한다. 합리적(reasonable 또는 rational) 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문자적 이해로 더 좋다.

바울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합리적인 어떤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산제사로서 몸을 드리는 것은 신령한 제사여야 한다. 그것은 성령의 지시

에 따라 드리는 제사여야 한다(벧전 2:5).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한 예배는 경배적 예배다. 사도는 그것을 합당한 예배로 규정짓는다.

그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지성, 이성, 정성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기계적이거나 자동적, 습관적 예배가 아니라는 뜻에서 합당한 또는 합리적 예배가 될 것이라고 한다. 더욱이 우리 몸을 제물로 드릴 때 영적으로 바치기 보다는 합당하게 바쳐야 할 것이다.

더욱이 봉사는 마음을 다하고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 물론 여기서 말한 봉사는 예배 봉사를 의미한다. 하나님이 받으실만한 예배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지성과 이성을 다 바쳐야 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 봉사가 어떤 것인지를 바르게 이해해야 하고 그 같은 봉사가 왜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1.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바울은 희생이 있는 거룩한 산제사로 표현했다. 즉 그 제사는,

- ① 살아있는 제사여야 한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실제적이고 긍정적으로 바쳐져야 한다.
- ② 우리 몸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
- ③ 거룩한 제사여야 한다. 그리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바치지 못하는데 있다. 우리는 어떤 물질 또는 시간,

마음은 바칠 것이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드리지 못한 채 다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의미가 없다. 자신을 바치지 않고 시간과 물질을 바칠 경우 하나님이 그것들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당신 위해 죽으셨고, 당신을 사랑하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합당한 예배를 요구할 때 당신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선물을 받고도 자신을 드릴 수 없어 다른 것으로 대치를 하려 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윌리엄 보든은 명성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예일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가 유망한 젊은이로 인생을 출발했으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중국땅에 선교사로 지원했다. 그의 가족은 물론 주변사람들은 그를 어리석다고 비난했다. 그런데 그는 중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무서운 질병에 걸려 죽고 말았다. 그는 예수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 세상에서 소유한 것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그는 작은 쪽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비축해 놓은 것도 없다. 후퇴할 곳도 없다. 후회할 것도 없다' 많은 다른 이들과처럼 그는 합당한 삶을 훌륭하게 살기 위해 그리스도의 섬김을 찾은 이다. 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마지막 상급을 얻었다.

(다음 주 계속)

서울교회를 떠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



천세중 목사 (고등부 지도)

3년 4개월! 짧지 않은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서울교회 고등부 지도목사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과 선생님들께서 손을 내밀고 축복송을 불러 줍니다. “아! 이제는 떠날 시간이 되었구나.”

9년 1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여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신약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시작하면서 “어느 교회를 섬길 것인가?” 생각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 기

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교회가 서울교회였고, 고등부였습니다. 대한민국 “사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대치동에 위치한 서울교회 고등부, 웬지 어렵고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순수하고 착한 학생들이 있었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영화의 장면들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수련회 동안 밤 늦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였던 장면들, 물장구치며 함께 뛰놀던 장면들,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행복했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설교시간에 던지는 질문에 기발한 대답으로 웃음을 주었던 학생들

과 지금까지 함께 신앙생활 해온 학생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부족한 저를 늘 이해해 주시고 믿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학부모 기도회로, 수능 기도회로, 『세바맘(세상을 바꾸는 엄마들) 성경공부』로 늘 함께 해 주셨던 학부모님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등부 학생들이 더욱 멋진 하나님의 일꾼들로 성장해서 다시 만났던 그 날을 기약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사역지인 대구로 떠나려고 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순례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시 순례자 1284호가 불법 발행되었다는 담임목사님의 광고에 관하여 순례자는 추호도 불법 발행한 것이 아님을 성도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순례자는 담임목사의 목회방침과 목회방향을 따라 하나님 말씀과 당회 결의 사항과 교회 공지사항, 성도들의 동정 등을 게재하여 성도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교회의 소식지와 전도지로 그 사명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순례자는 소식지와 전도지로서의 역할에 앞서 교회 내에서 떠돌고 있는 각종 유언비에 관하여 사실에 입각하여 기사를 게재하므로 성도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교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기까지 순례자의 우선적 사명이라는 판단 하에 편집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8월 28일자 1284호 순례자는 그 전 주일에 편집회의를 거쳐 기획한 것이고, 그간 미뤄져왔던

당회로 인하여 처리되지 않았던 안건들이 8월 20일 당회 속회에서 처리, 보고된 것들과 최근 교회 정관을 원천무효화 한다는 서명을 받는 것에 대해

이를 의아해 하는 성도들을 위해 목사, 장로 안식년제는 우리교회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 적법성을 순례자(348호, 803호)에 근거하여 실어드린 것입니다.

또한 원로목사님 사택 근저당 설정 건은 2010년 2월 21일 임시당회를 거쳐 합법적으로 된 것임에도 당회록이 날조되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이 실린 짜라시에 대한 설명과 더 이상의 짜라시가 유포되지 않도록 실은 것입니다.

이에 담임목사님은 안식

년제와 근저당 설정 건을 수요일 임시 당회의 점검을 거쳐 실으라고 하였고 당시 편집부장 홍일성 장로가 해의 출타중인바 서기 노문환 장로께서 일부 성도들이 8월28일 짜라시 2탄을 또다시 유포한다고 하니 담임목사가 짜라시 유포를 막는다면 순례자 기사 축소를 건의해 보겠노라고 했고, 담임목사는 짜라시 유포를 막겠다고 하여 순례자도

4면으로 축소 인쇄를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토요일 오후 인터넷 매체인 ‘교회와 신앙’에 허위사실 짜라시가 게재되었고, 오후 2시경

순례자는 앞으로도 서울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그 누구에게도 편중되지 않고, 조금도 가감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거짓을 바로잡는 기사를 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본 순례자는 긴급 편집회의를 열어 홍일성 장로와 통화,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당초 기획했던 6면을 인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담임목사님은 그때까지 ‘교회와 신앙’에 올라온 짜라시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순례자의 발행인은 분명 담임목사가 맞으나 발행인이라고 하여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순례자는 앞으로도 서울교회가 회복되는 일을 위하여 그 누구에게도 편중되지 않고, 조금도 가감 없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사실을 사실대로, 거짓을 바로잡는 기사를 실어 성도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순례자 -



2016년 가을 학기 첫 번째 채플에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는 호산나대학 재학생들. 서울교회 부교역자들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두 번 호산나대학 채플을 인도한다.



일본에 영적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문안드립니다. 일본 선교기도팀 여러분들도 안녕하세요?

일본 아자기장로와 한국 기독교 탐방과 교회를 방문하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한국의 기독교 역사와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가고 싶어 합니다. 방문예정지는 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천안독립기념관, 시골교회와 도시의 교회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5월1일(일) 관동교구 헌법기념회 강연회가 도쿄로자와 미구니교회에서 오후1시30분부터 열렸습니다. 개교회들의 대표들이 참여하여 일본기독교단이 하나님 앞에서 일본전황을 신으로 믿고 전시에 잘못을 저지른 죄를 회개하고 특히 침략한 아시아 나라들에게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성명문을 발표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들이 말만이 아니고 진심으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5월9일(월) 전도위원회가 오후 6시30분에 사이다마신세이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사이다지구와 교구와 일본기독교단의 전도에 관하여 회의를 하며 교단과 교구와 지구가 전도에 힘을 쓰려는 모습이 보여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전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모두가 몸으로 느끼면서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려고 이야기하고 경험등을 논하면서 가족전도를 하자고 힘있게 임원들이 이야기하여 희망이 보였습니다.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국제사랑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성도님들과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족은 서울교회 선교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일본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것은 서울교회와 선교위원회와 일본선교기도팀 여러분들의 사랑의 기도와 후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와 일본생활에 생각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로 기도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간증이 될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힘들고 전도와 복음전파에 어려운점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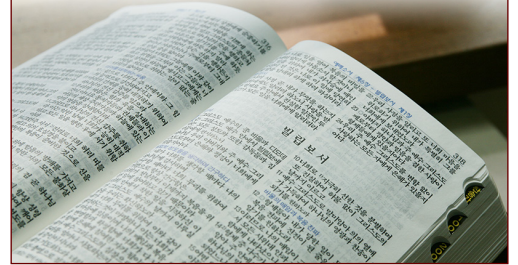
<기도제목>

- 1) 120일 일본어성경통독을 1월1일부터 시작하였습니다. (1년에 3번 일본어성경통독) 모든 성도님들이 1년에 3독 일본어성경통독을 하여 말씀의 검으로 승리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2) 2016년5월에 음악회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0월의 기타미니회를 위하여도 기도부탁드립니다.(장애인과 유아들의 어머니들을 위한 음악회 봉사모임입니다.)
- 3) 일본목회자들과 교회성도들이 새벽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룰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4) 저와 아내와 아이들이 겸손하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울교회 선교사로써 부끄럽지 않는 삶과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 5) 한국어강좌가 성학원대학과 협력하여 개최되어 한국어를 통하여 젊은이와 일반인을 전도 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일본 선교사 허창범 현미순 올림.

전교인 성경 암송대회

예 선 : 10월 9일 (주일)
 본 선 : 10월 14일 (금)
 범 위 : 히브리서 11장(믿음)
 로마서 8장 (소망)
 요한일서 4장 (사랑)



동 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9월4일(주) 삼김의 교회 주일예배설교를 한다. 9월 10일(토) 종교개혁 500주년 월례기도회 및 26차 신학특강을 갖는다.

■ 득녀: 15교구전용운 성도 구주영 성도 (전광영 집사 김인숙 권사 차남 가정) 8월 19일
 ■ 이사: 2교구 이신정 권사 서울 강남구 삼성로85길 11 101동 1802호(대치4동 롯데캐슬아파트) 전화 070-4238-8566

■ 박사학위: 11교구 노선균 집사(김의정 집사 부군, 노문학 장로 장정화 권사 장남)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 의학박사 (흉부외과학)

■ 주일식당봉사: 안드레, 발림 선교회 (9.4) 리브가 전도회 (9.11)

■ 금주의 식사제공: 4교구김재중 집사 김유경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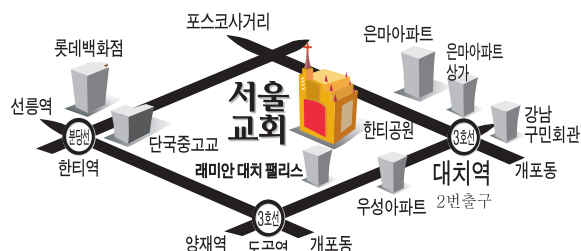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9월 첫 주부터 개강한 다락방 모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섬기시는 다락방장, 부다락방장들이 성령 충만하도록
2.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3.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